



G20 주요국과 통상현안 공조 확대

-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계기 미국, 중국 등 주요국과 통상현안 논의
- 중동, 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(FTA) 진전 가속화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 장관 회의(8.24-25, 인도 자이푸르)에서 미국, 중국, 인도 등 9개국*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하여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,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* 미국, 중국, 인도, 사우디아라비아, UAE, 브라질, 싱가포르, 스위스, 튀르키예

먼저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(Katherine Tai) 무역대표부(USTR)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(IPEF)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등 통상현안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.

또한, 중국 왕셔우원(Wang Shouwen, 王受文)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(장관급)과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, 디지털 통상 및 한중 간 교역·투자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,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.

한편, 사우디아라비아(한-GCC FTA), UAE(한-UAE CEPA 및 한-GCC FTA), 브라질(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A))과는 현재 진행 중인 FTA의 진전 가속화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, 인도와도 한-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) 개선 협상 진전을 통해 호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아울러, 응고지 오콘조-이웰라(Ngozi Okonjo-Iweala) WTO 사무총장 및 제13차 WTO 각료회의(제13차, ' 24.2월) 의장국인 UAE를 비롯하여 주요국들과 WTO 개혁 및 각료회의의 목표에 대하여 공유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.

한편, 안 본부장은 25일 저녁 뉴델리에서 B20* 특별세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주요 통상의제를 소개하고, 다양한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-인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.

* G20 정책협의 과정에 경제계의 정책권고를 전달하기 위한 민간 경제단체 및 기업 간 협의체

담당부서	다자통상법무국	책임자	과 장	김파라 (044-203-5930)
	다자통상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진달래 (044-203-5934)